

킹스베리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속시원하게

클로렐라 처리 통한 환가루병 감소 등

농진청, 재배부터 수출까지 일괄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리빙랩(현장 연구실)을 통해 대과형 딸기 '킹스베리'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클로렐라 처리를 통한 환가루병 감소와 꿀벌 피해 저감 ▲화분개개용 꿀벌의 표준화 관리기술 ▲GAP 실천기술 ▲수확용 인종 운반차와 리텍스 재질의 수출용 포장 등이다. 클로렐라 대량배양 최적화 기술을 통해 '킹스베리' 경도를 10~30% 높이고, 환가루병 발생은 20~24% 줄일 수 있었다. 약제 사용을 줄인 친환경 처리 덕분에 꿀벌 피해가 감소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화분개개 전용 벌통을 통한 온도와 먹이 관리로 겨울철 딸기 상품 비율은 8% 높아졌으며, 꿀벌 수명도 50일 늘었다. 또한, '킹스베리'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술 상담(컨설팅), 인종 교육, 지침서 제공 등 실천 기술을 지원해 집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인종 운반차와 리텍스 재질의 수출용 포장재를 개발해 수출 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상품과 과일 비율(5~10%)을 최대 1%까지 낮췄다. 이를 통해 환가루병에 취약하고, 수분이 잘피지 않으면 기형과가 발생할 수 있는 '킹스베리' 재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배 농가가 필요로 하는 GAP 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과 수출 도중 충격에 의한 물러짐 대처 방법 등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했으며, 16일 논산킹스베리연합회 부성유류에서 현장 연시회를 연다. 킹스베리연합회 박형규 회장은 "킹스베리'를 재배하며 고민했던 여러 문제가 해결된 만큼 고품질 딸기를 생산해 국내·외 소비자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수확관리공학과 이성현 과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최근 인기가 많은 '킹스베리' 재배 수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내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20일까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진진)는 2022년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GULFOOD(2월), 일본 도쿄 Foodex Japan(3월), 미국 애너하임 NPEW(3월), 캐나다 몬트리올 Sial Canada(4월), 중국 상하이 SIAL China(5월) 등 상반기 개최 예정인 12회 박람회의 통합한 국관에 참가할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업체다. 업체당 최대 3개까지 종합박람회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주최로 참가하는 종합박람회 외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개별적인 박람회 참가도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최국의 코로나19 출입국 여건에 따라 박람회 개최 여부 및 참가 형태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참가업체의 입국이 불가한 경우 박람회 현장에 상품설명과 바이어 상담이 가능한 전담 MD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람회 참가 신청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bbal.or.kr)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외사입처 신유통체널사업부(061-981-0985/0987)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2022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단 내년 1월 14일까지

전북도가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년취업과 지역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2022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지난 2007년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난과 도내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정책이다. 내년도에는 탄소, 농·생명, 자동차·기계 등 전북도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연계해 창의적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2개 과정, 교육 인원 1,2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이공계열 15개 과정과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10개 과정 등 총 2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공계열과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간 융합형 개설도 가능하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단은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북도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유호상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이 2021년도 농협은행 고객만족도 연간 평가 전국 1위 금고 사무소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고객 만족도 연간평가 전국 1위'

'도금고' 농협은행 도청지점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지점장 이상우)이 2021년도 농협은행 고객만족도 연간 평가 전국 1위 금고 사무소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00개 농협은행 사무소를 대상으로 매월 고객 만족도 평가 점수를 연간 합산해 평가 통해 전북도청지점이 금고 사무소 부문 전국 1위 선정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상우 지점장과 직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찾아오시는 고객 한분 한분을 정성으로 모시며 서로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응 한다던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협은행 도청지점은 고객에게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와 공감하는 도금고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상기자

국내 최초 공정무역대학 재인증

전주대, 리빙랩 방식 통한 전북 융합형 제품 개발 노력 인정

전주대학교가 국내 최초 공정무역대학 재인증을 받았다. 14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정무역도시 인증기구 Fair Trade Towns International 한국지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대학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무역대학은 공정무역 확산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공정무역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가 2003년 세계 최초로 공정무역 대학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전주대는 2019년 한국 최초의 공정무역대학으로 인증받은 이후 2년간 교내 학생 동아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

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로컬-페이트리이드제품(전라북도 융합형 공정무역 제품) 개발을 리빙랩 방식을 통해 추진한 성과를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홍순직 총장은 "학생과 대학 구성원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며, "전주대학교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지난달 수도권외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주대의 공정무역대학 재인증을 통해 전주시의 인증 요건 5개 중 1개 항목이 충족되는 성과를 동시에 이뤄냈다.

/정은성기자

도내 기업, 수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 노릇

전북도, 올해 수출증가율 35.8%로 전국 4위
무역협회와 수출 유공의 날 기념식서 8곳 포상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 도내 기업들의 수출 증가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전북도내 기업 수출은 64억 달러를 달성해 작년 같은 기간 48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고, 전국 광역자치체 중 수출 증가율 4위를 기록하는 등 11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한 것이 수출 급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14일 한국무역협회 전북 지역본부와 함께, 전주그랜드힐스 컨벤션에서 신원식 정부부지사을 비롯한 수출 유공 기관장과 기업인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를 열고, 도내 수출기업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수출 및 투자 유공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시·군 및 수출 유공기관장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6개 부문과 투자 2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 SK넥셀리스 등 8개 기업을 2021년 수출 및 투자 유공 업체로 선정했다.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최우수분야(주)SK넥셀리스, 해외시장 다변화 분야(주)세창스틸, 처음수출 최우수분야(주)한호기술, 농수산물·농수산 가공 수출 우수분야(주)한우물, 수출성장 우수 분야(주)우리비앤비, 벤처기업 수출

우수 분야(주)KSI 등 6개 사가 선정됐다. 투자 부문에서는 내국인 투자 우수(주)씨케이인전유리와 외국인 투자 우수(유)이팩서울 등 2개 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주)SK넥셀리스가 4억불 수출탑, 로얄캐니코리아(유)가 5천만불 수출탑 수상 등 총 27개 사가 정부 수출탑을 수상했다. 또한, 송영빈 해상씨앤씨(주) 대표, 정종화(유)비알일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10명이 개인포상을 수상했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어려운 산업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 성과를 올려 포창과 수출 탑을 수상하는 기업에 축하와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전북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공기관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김제 한우물·이팩서울 올 수출 유공업체 포상

김제 (주)한우물과 이팩서울(유)이 14일 전주 그랜드힐스 컨벤션에서 열린 '제24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에서 2021년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 업체로 나란히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포상은 수출우수 6개부문, 투자우수 2개부문 등 총 8개부문으로 전라북도 11개업체를 포함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제시는 (주)한우물이 농수산물가공수출 부문 우수기업으로 이팩서울(유)은 외국인투자 부문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받았다.

내수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주)한우물은 해외시장 진출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격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주)한우물은 2019년 대만과 중국을 집중 타겟으로 한 해외마케팅을 펼쳐 2019년 54만불, 2020년 116만불, 2021년 200만불 수출액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미국과 영국 코스트코에 대량 수출계약이 성사되어 이제는 세계적인 글로벌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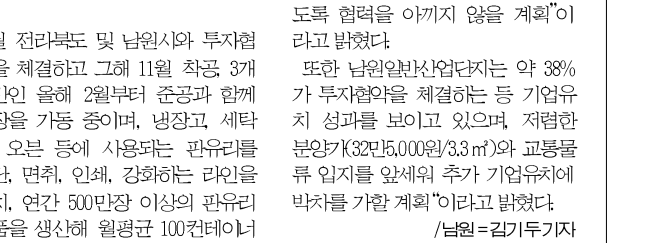
수출 유공업체로 표창을 받은 (주)한우물(사민 왼쪽)과 이팩서울(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팩서울(유)은 글로벌 기업 미국 이팩(e-Pac)사가 직접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미국 이팩(e-Pac)사는 미국에만 14개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폴란드 등 5개 해외법인인 있는 친환경디지털 포장재 생산에 있어 독보적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4월 친환경포장재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최종 한국을 투자국으로 낙점하

남원 케이에스아이 수출 유공업체 선정

남원시는 14일 전주 그랜드힐스 컨벤션에서 열린 제24회 수출 및 투자 유공인의 날 행사에서, 남원야간 산업단지에서 입주해 있는 주씨케이 안전유리가 전라북도 내국인 투자 우수 기업으로, 광치산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주씨케이에스아이가 벤처기업 수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전라북도 정부부지사가 도내 8개 유공업체에 대해 포상했다. 주씨케이인전유리는 사비만에 조성된 남원야간산업단지내 부지 2만 4,950㎡에 150억원을 투자해 2020년

물량을 가공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씨케이에스아이는 남원광치산산업단지 입주해 통가드레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만불 수출액을 달성하여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류창 남원시 기업지원과장은 "많은 기업들이 남원시에 뿌리를 내리고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원야간산업단지에는 약 38%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저렴한 분양가(32만5,000원/33㎡)와 교통물류 입지를 앞세워 추가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중기 디지털 성숙도 '100점 만점에 41점'

조사결과 업체 66% "디지털화 대비전략 없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4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문항별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는 41.4점에 불과해 디

지탈 전환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2.5점)이 비제조업(38.5점)에 비해 높았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기업(43.3점)이 내수기업(39.4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비제조업 역시 수출기업(44.1점)이 내수기업(37.4점) 대비 높은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숙도는 수출 경쟁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16.7%의 기업만이 전략

적으로 디지털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65.5%의 중소기업은 디지털화 전략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기업은 20.6%가 디지털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수기업은 10.5%만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출기업에 비해 내수기업의 준비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새내 인력 교육(52.4%), 온라인플랫폼과의 연결(30.9%), 기업문화 변화(29.5%), 전문가 컨설팅(23.7%)을 꼽았다. /김윤상기자